

# 화이트헤드의 불멸 개념 연구: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 개념을 중심으로\*

전 철  
(한신대학교, 신학과)

## 【한글요약】

본 연구는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objective immortality) 개념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불멸론 안에서 주체적 소멸(subjective mortality)과 객체적 불멸(objective immortality)의 개념적 구상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주체는 매 순간 순간 탄생되고 소멸되나 그 모든 사건은 객체적으로 기여가 되고 사라지지 않는다. 신은 모든 주체의 소멸을 객체적으로 품으며 객체적 불멸성의 근거로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객체적 불멸성의 관념의 전제로서 우주의 관계성과 과정성을 주목하였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는 객체화의 중요한 근거로서의 우주의 연장성과 관찰의 문제, 그리고 형이상학적 개념인 객체적 불멸성이 인간학적·신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정당성과 의미를 지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 개념의 학제간 대화 가능성, 특히 신학적 함의를 조명하였다.

[주제어] 소멸, 불멸, 객체적 불멸, 영혼, 죽음, 신학과 과학

---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불멸’에 관한 사색이 반영된 ‘객체적 불멸성’ 개념에 대한 조명을 목적으로 한다. 불멸은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이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불멸의 관념은 인간과 문명의 기저에 아주 긴밀하게 조우하고 있다. 이러한 불멸에 관한 급진적 해석을 시도한 사상가를 우리는 화이트헤드로 주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이트헤드는 ‘변화’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불변’하는 것을 자명하게 전제하는 모든 사유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은 모든 불변하는 실체를 전제로 하는 실체의 철학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그 토대를 해체하고 ‘불변’이 아니라 ‘소멸’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해석학적 발상을 그 뿌리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영속적인 것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모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바탕으로 구현된다는 화이트헤드의 사유 안에서 ‘불멸’ 관념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사실 독존하는 실체에 대한 거부와 불변에 대한 거부의 사유는 자연스럽게 ‘불멸’에 대한 거부의 사유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화이트헤드는 ‘불멸’ 개념을 자신의 형이상학적 사색과 사변의 체계 안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직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화이트헤드가 ‘불멸’ 개념을 어떻게 조명하는지를 검토하며, 특히 화이트헤드가 구상한 ‘불멸’ 개념에 관한 학제간 대화의 관점에서 그 신학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경험의 근본 형식으로서의 ‘과정’, ‘관계성’, ‘불멸’의 지위를 다룬다(2). 둘째, 화이트헤드의 객

체적 불멸성 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한다(3). 셋째, 객체적 불멸성을 우주의 연장성과 관찰의 차원과 연결시켜 다루어본다(4). 넷째, 화이트헤드 불멸 개념에 대한 신학적 조명을 검토한다(5).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과 과제를 제시한다(6).

## 2. 경험의 근본 형식으로서의 ‘과정’, ‘관계성’, ‘불멸’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과정’은 우주에 들어있는 하나의 냉혹한 사실(stubborn fact)이다: “우리는 현재 속에 있다. 현재는 항상 변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파생된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를 조건 짓고 있으며, 미래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과정이다.”<sup>1)</sup> 과정은 궁극자<sup>2)</sup>이며, 경험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실이기에 이는 변화를 동반한다.

만약 ‘과정’과 ‘변화’가 경험의 근본이라면, 인간과 생명의 경험 또한 ‘과정’과 ‘변화’를 기초로 구현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서구의 몇몇 철학이 이러한 과정과 변화의 관점에서 인간과 생명의 현상을 조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즉 인간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운동은 변화의 현실성에 대한 고려 없이 ‘최고의 실재’라는 전제 속에서 해명된다. 이러한 최고의 실

1) Alfred North Whitehead. *Modes of Thought*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오영환 문창옥 역, 『사고의 양태』 (서울: 다산글방, 2003), 79.] 이하 MT로 표기.

2)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The Gifford Lectures of the University of Edinburgh*. Corrected edition von David Ray Griffin und Donald W. Sherburne (1929)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오영환 역, 『과정과 실재: 유기체적 세계관의 구상』 (서울: 민음사, 1991), 56.] 이하 PR로 표기.

재는 ‘변화를 떠나있는 것’을 의미한다. 급기야 최고의 실재, 변화와는 상관없는 불변하는 질서, 이러한 것이 바로 궁극적 완전성의 지위를 점하게 된다. 여기에서 변화는 불변의 그늘이고, 역사적 우주는 불변하는 질서의 하위현상이 되어버렸다. 사실 불멸하는 인간의 영혼 관념은 이러한 불변의 질서가 인간학적으로 반영된 관념이기도 하다.

화이트헤드의 반론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인간과 문명은 변화와 창조의 실상을 간과하고 이 역동적 현실을 정태적인 절대자와 궁극자의 하층은 ‘소일거리’<sup>3)</sup>로 퇴락시켜 이해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불변의 사유에 반하여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존재에 관한 새로운 열개를 구축한다. 과정과 창조적 현실은 우주의 부수적인 그늘이 아니라 우주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국면이다. 그래서 그는 존재를 과정으로 정의한다: “나의 주요 학설은 <존재>(그 어떤 의미에 있어서이건)란 과정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정과 존재라는 관념은 서로를 전제하고 있다.”<sup>4)</sup>

과정과 변화의 관점에서 존재를 해명하는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정태적인 사태는 결코 진정한 실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생성과 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정태적인 사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과정을 거스르는 ‘불멸’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학적인 관념인 불멸, 즉 특정한 사태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지속을 한다는 관념은 화이트헤드의 체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과정을 배제한 불멸은 존립할 수 없다.

불멸에 관한 화이트헤드의 근본적인 통찰은 우주의 ‘관계성’에 기인한다. 모든 현실적 계기는 객체적 성격을 지니며 ‘자기초월체’

---

3) MT 117.

4) MT 136.

의 관점에서 ‘주체’는 객체적으로 불멸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사건은 타자의 관계와 관점에서는 소멸하지 않고 생성의 가능성으로서 불멸한다. 화이트헤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자기 초월체의 발현적 통일성(emergent unity of the superject)에 관한 학설이다. 현실적 존재는 그 자신의 생성의 직접성을 관장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객체적 불멸성의 기능을 행사하는 원자적 피조물인 자기 초월체로서 각각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있음>being으로 되어 온 것인데, 모든 <있음>이 모든 <생성>becoming을 위한 가능태라는 것은, 모든 <있음>의 본성에 속한다.”<sup>5)</sup> 화이트헤드는 주체와 객체적 불멸성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기초월체의 관계를 상대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relativity)로서 정식화한다. 모든 과거는 총체적으로 미래에 기여된다.<sup>6)</sup>

이렇게 화이트헤드는 현실의 궁극적 실상이자 경험의 근본 형식으로서 ‘과정’과 ‘관계성’을 구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서 ‘불멸’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구축한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형이상학적 학술에 있어서 근본적인 점은 바로 “변화의 불변적 주체로서의 현실적 존재라는 개념이 완전히 폐기된다”<sup>7)</sup>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과정과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은 어떠한 내용인가.

### 3.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

불멸에 대한 관념은 인간 문화에 매우 뿌리 깊게 얽여 있다.

---

5) PR 120.

6) Stephen David Ross, *Perspective In Whitehead's Metaphysic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3), 253.

7) PR 91.

인간에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것보다는 더 가치를 지닌 사태로 여겨진다. 플라톤은 ‘사멸하지 않음’(athanasia)은 신적인 것이며 인간의 영혼은 그 안에서 불사한다고 말한다.<sup>8)</sup> 인간이 ‘소멸’보다는 ‘불멸’을 갈망하는 것은 매우 근원적인 열망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의 문화는 소멸과 불멸이라는 대극적 가치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왔다. 이 점에서 소멸과 불멸은 인간 삶과 존재의 자명한 두 측면이기도 하다. 문제는 소멸과 불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을 조명하는가를 실재론적으로 묻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불멸 개념이 우리에게 새로운 전망을 던져주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그는 전통적인 문화적 용법으로서의 소멸과 불멸의 문제를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에 관하여 실재론적인 정의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가 불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즉 불멸을 대하는 인간의 인간학적이며 직관적인 견해와 연결되는 지점, 즉 우리의 ‘신체성’(Bodyness) 혹은 ‘영혼의 불멸’(immortality of the soul)을 화이트헤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인간의 ‘불멸’에 대한 관심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이며 육체적인 경험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영생의 욕망으로 가득한 호기심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의 소멸과 사멸이 우리 삶의 마지막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절박한 질문이 실존적으로 놓여 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소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하고 불멸한 생명, 가치를 묻는 인간 존재의 갈망 또한 거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하여 사멸과 소멸을 넘어서는 개별적 인간의 불멸에 관한 화이트헤드의 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인간의 신체성과 영혼 그리고 인간 존재 그 자체

8) 플라톤/박종현 역, 『파이돈』 (서울: 서광사, 2003), 388.

는 영원한 연속성과 동일성을 담보해내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태 자체는 생멸(生滅)의 사태이기 때문에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불멸성은 주체적일 수 없으며 철저하게 객체적 성격(objective character)이다.<sup>9)</sup>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인간의 인격적 동일성과 불멸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는 바로 모든 사태의 유동성과 생성성에 기인한다. 그에 있어서 사물은 유동성과 변화에 기반을 두어 존립한다. 구체적 차이 속에서 추상적 동일성이 구현될 수 있지, 어떠한 사태도 구체적 동일성을 담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영혼의 불멸이나 모든 변화와 존속을 거슬러 파괴되지 않는 독자적 불멸성의 성격은 화이트헤드의 사유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sup>10)</sup> 이러한 이유로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신 또한 변화하고 생성한다. 모든 존재는 주체적으로 소멸하며 객체적으로 불멸한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불멸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객체적 불멸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화이트헤드가 불멸성 개념의 기본구상은 1941년 4월 22일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의 Ingersoll 렉처에서 발표된 강연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11)</sup> 이 강연문은 추후 Harvard Divinity School Bulletin 7(1941-42)에 담겨진 “Immortality”라는 원고로 공개된다.<sup>12)</sup> 이 강연문은 화이트헤드의 ‘불멸성’ 개념에 대한 정식화를 시도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화이트헤드의 불멸성 개념은 모든 이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

9) PR 92.

10) Michael Hampe, *Alfred North Whitehead* (München: Beck, 1998), 170.

11) 화이트헤드의 강연이 끝난 후 70년이 지난 2011년의 Ingersoll 강연의 주제 또한 불멸성(Immortality)이었다. 종교와 문화와 인류학에서의 불멸성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 주제이다(<http://www.hds.harvard.edu/multimedia/video/2011-ingersoll-lecture-on-immortality>).

12) Alfred North Whitehead, “Immortality,” *Harvard Divinity School Bulletin* 7 (1941-42) (Harvard University), 5-21.

하여 빅터 로우는 다음의 일화를 남긴다. 화이트헤드가 강연을 마치고 강연장인 하버드 기념 교회를 떠난 후 그 강좌에 참여했던 몇몇의 청중들은 “화이트헤드가 불멸을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서로 하였다고 한다.<sup>13)</sup>

화이트헤드는 이 강연에서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목한다.<sup>14)</sup>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사태들은 본질적인 상호관계성에서 등장한 사태이다. 그리고 모든 사태는 우리의 주체적이며, 감각적이며, 의식적 경험을 넘어서는 것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존재가 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태로 인하여 불멸성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화이트헤드는 주목한다. 그렇다면 왜 존재의 관계성이 존재의 불멸성으로 연결된다고 화이트헤드가 보았는가. 전통적인 사유양식 속에서 존재의 관계성과 존재의 불멸성은 이율배반적인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이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된다 : (1) 모든 존재는 관계와 생성의 사건이다. (2) 그 존재는 새로운 관계에 기여되며 소멸된다. (3) 주체의 새로운 관계로 기여되는 그 사건은 주체의 관점에서는 소멸과 마감이지만 객체적 관점에서는 불멸이다. (4) 이러한 점에서 모든 주체적 소멸은 새로운 여건과의 관계에서 객체적으로 불멸하고 기여된다.

존재의 관계성과 불멸성에 관한 그의 사유는 ‘객체적 불멸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분명하게 수렴되고 정식화된다. 이러한 주체

13) H.G. Hubbeling, “Whitehead and Spinoza,” Harald Holz & Ernest Wolf-Gazo (Hg.), *Whitehead und der Prozeßbegriff: Beiträge zur Philosophie Alfred North Whiteheads auf dem Ersten Internationalen Whitehead-Symposium* 1981 (Freiburg: Alber, 1984), 381.

14) Alfred North Whitehead, “Immortality,” *Harvard Divinity School Bulletin* 7 (1941-42) (Harvard University), 5.

적 소멸과 객체적 불멸에 관한 분명한 정식화는 그의 주저인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 1978)에서 분명하게 제시된다: “유기체의 철학에 있어 영속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형상>이다. 형상은 변화하는 관계를 감수한다. 현실적 존재는 주체적으로 <끊임없이 소멸>되지만 객체적으로 불멸immortal한다. 현실태는 소멸될 때 주체적 직접성을 상실하는 반면 객체성을 획득한다. 그것은 그 불안정의 내적 원리인 목적인을 상실하지만 작용인을 획득한다. 이 작용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창조성을 특징짓는 제약obligation의 근거가 된다.”<sup>15)</sup>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경험은 그 자체가 과거에 선행하고 있는 존재들을 자신의 복합적 사실로 수용하고 구성함으로써 형성이 된다. 경험은 과거의 것에 대한 창조적 수용과 창조적 실현이다. 과거의 여건은 객체적으로 현재에 개입되고, 현재는 과거의 요소를 자신의 방식으로 새롭게 객체화한다.<sup>16)</sup> 그러므로 현실적 존재는 주체적으로는 소멸하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계속 계승이 되며 불멸한다. 현실적 존재의 소멸은 목적인의 상실이지만 그것은 타자에게 작용한다. 현실적 존재는 동시에 모든 미래의 객체에 게 확고한 ‘가치’로서 기여된다.<sup>17)</sup> 이는 불멸의 성격을 지닌다.

화이트헤드의 이와 같은 논의가 “현실적 존재의 관점”에서 주체적 소멸과 객체적 불멸을 조명한 것이라면 “우주의 실재론적 측면”에서 객체적 불멸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확보된다: “독특

15) PR 92.

16) “경험의 과정은, 그 과정에 선행하고 있는 존재들을, 그 과정 자신인 복합적 사실 속으로 수용함으로써 구성된다.” Alfred North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New American, 1933) [오영환 역, 『관념의 모험』 (서울: 한길사, 1996), 284.] 이하 AI로 표시.

17) Rowanne Sayer, *Wert und Wirklichkeit: Zum Verständnis des metaphysischen Wertbegriffes im Spätdenken Alfred North Whiteheads und dessen Bedeutung für den Menschen in seiner kulturellen Kreativität* (Würzburg: Ergon, 1999), 173.

한 한정성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은 객체적 과정에 생기를 불어넣는 목적인이다. 그것의 달성은 그 과정을 멈추게 한다. 그 결과 초월을 통해 그 개별적 과정은, 달성 가능한 한정성의 보고riches인 우주의 ‘실재적 가능태’에 추가되는 하나의 새로운 객체적 조건으로서의 그 객체적 불멸성으로 이행하게 된다.”<sup>18)</sup>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불멸개념은 그 개념을 지탱하는 더욱 폭넓은 기반과 요인에 대한 분석 속에서 검토된다. 적어도 실재 전체가 맺는 관계의 성격 속에서 불멸의 위치가 확보되기에 결코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난 독립적 존재(independent existence)를 상정하고 담보하는 ‘불멸’ 관념은 폐기된다.<sup>19)</sup> 이러한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불멸은 주체적인 불멸성(subjective immortality)의 성격을 담보하지 않는다.

주체는 결국 소멸한다. 어떤 주체도 결코 자존하거나 불멸할 수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체의 정체성은 시공간의 모험을 거쳐 그 자체로 영원할 수가 없다는 언명을 화이트헤드는 제시하고 있다. 단지 주체는 객체적 기여를 통하여, 객체적 불멸성을 우주에 각인시킨다. 즉 존재는 그 자체가 소멸하지만 객체적 불멸성을 통하여 세계에 자신을 남긴다는 것이다. “객체적 불멸성”이 과거의 나의 행위가 객체화를 통하여 내적으로는 미래의 나의 근거가 되고, 외적으로는 타자의 생존의 조건이 된다는 저 언명은, 전통적인 방식의 “주체적 불멸성”에 기반을 둔 사유방식과는 다른 존재론적이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은 우주의 모든 경험이 결코 주체적으로 소멸되지만 공허한 무로 돌아가지 않음을 지시하고 있다.

---

18) PR 406.

19) Alfred North Whitehead, “Immortality,” *Harvard Divinity School Bulletin* 7 (1941-42) (Harvard University), 10.

사건은 결코 그대로 자존하거나 무화되지 않는다. 시간의 계기 가운데에서 한 사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른 사건으로 편입되고 기여된다. 모든 사건은 공허한 무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사건은 우주에 차곡차곡 쌓인다. 우주는 그 풍요로움을 객체적 불멸성의 성격 속에서 보존하고 구유한다. 결코 우주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 의식에서는 모든 경험이 동어반복의 궤도를 답습하는 사건으로 보일지 몰라도 모든 주체적 경험을 포괄하는 우주의 관계성은 우리의 의식적 경험(*conscious experience*)의 지평을 넘어서는 국면이다.<sup>20)</sup> 여기에서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시간관을 누적적 시간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다. 즉 화이트헤드의 시간관과 역사관은 객체적 불멸성을 토대로 하여 모든 주체의 사건들은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승된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객체적 불멸성은 그 자체로서 자명하게 존재하는 우주의 성격인가.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객체적 불멸성의 존립에 대한 토대로 신(*God*)을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현실적 존재들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그 주체적 소멸은 객체적으로 기여되면서 불멸의 성격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현실적 존재는 신에 의하여 충실하게 파악되고 보존된다.<sup>21)</sup> 즉 현실적 존재는 주체적으로 소멸하고 또한 동시에 현실태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들은 끊어지지만 신을 매개로 하는 객체적 불멸의 성격 속에서 영원적 객체와 유사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객체적으로 불멸하는 현실적 존재를 현실태와 연

---

20) Alfred North Whitehead, "Immortality," *Harvard Divinity School Bulletin* 7 (1941-42) (Harvard University), 5.

21) C. Robert Mesle, *Process-Relation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Alfred North Whitehead* (West Conshohocken: Templeton Foundation Press, 2009), 108-109.

결시키는 매개고리로서 ‘신의 결과적 본성’을 구상한다. 즉 신의 결과적 본성은 현실적 존재의 경험을 그 자신이 파악하고 보존하고 유지함을 통하여 객체적 불멸성의 지위를 확보해 낸다. 이러한 신이 품고 있는 현실적 존재들의 객체적 불멸성은 다시 새로운 미래의 경험에 기여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의 유한한 경험과 그로 인하여 창출되는 가치는 신의 기억과 보존을 통하여 소실되지 않고 객체적으로 남는다. 모든 세계의 경험은 신의 결과적 본성의 일부로 기여된다.<sup>22)</sup> 그리고 인격적 경험의 주체적 소멸은 신의 사랑 안에서 그 영원한 인격의 불멸성을 덧입게 된다.<sup>23)</sup>

화이트헤드는 세계의 경험이 상실되지 않으며 객체적으로 신의 결과적 본성을 통해 보존되고 불멸하는 측면을 『과정과 실재』 5부 제2장 신과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신의 결과적 본성은 세계에 대한 신의 심판이다. 신은 세계가 신 자신의 삶의 직접성 속에 들어올 때 세계를 구원한다. 신의 결과적 본성은 구원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는 사랑의 심판이다. 그것은 또 시간적 세계 내의 단순한 잔해에 지나지 않는 것을 활용하는 지혜의 심판이다.”<sup>24)</sup>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현실적 존재의 모든 주체적 경험은 신 안에서 보존되고, 기억되며, 존속된다. 그것은 신에게 있어서 ‘구원’이자 ‘심판’이며, 그것은 신의 ‘사랑’이자 신의 ‘지혜’이다. 그렇다면 왜 화이트헤드는 ‘불멸성’과 ‘신’을 연결시킨 것일까. 그에 있어서 신은 이 세계에 대한 최종적 가치체계의 지위이다. 이러한

22) Cf. Timothy E. Eastman & Hank Keeton, *Physics and Whitehead: Quantum, Process, and Experien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4), 266.

23) Roland Faber, *Gott als Poet der Welt. Anliegen und Perspektiven der Prozesstheologi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3), 102.

24) PR 595.

점에서 활동의 세계(world of action)와 가치의 세계(world of value)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우주의 두 요소임을 그는 주요하게 바라보았다.<sup>25)</sup>

생멸하는 세계의 활동성은 그 자체로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를 형성하고, 동시에 특정한 가치의 체계에서 활동성의 지위를 점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다시 세계의 활동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여된다. 이러한 활동과 가치는 현실의 두 측면임을 화이트헤드는 강조한다. 바로 여기에서 활동과 가치를 연결하는 신의 지위가 요청된다. 신은 이러한 점에서 사물의 활동과 가치를 궁극적으로 통일하는 기능이다.

#### 4. 객체적 불멸성과 ‘관찰’의 문제

모든 존재가 주체적으로 소멸하나 객체적으로 기여되고 불멸한다는 화이트헤드의 불멸론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여기에서는 물리적 우주의 ‘연장적 관계’(extensive relations)를 고려하고자 한다. 물리적 우주의 ‘운동성’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조명은 그의 ‘연장적 연속체’의 구상 속에서 빛을 발한다.<sup>26)</sup> 그리고 객체적 불멸성은 단순한 주체의 객체를 향한 이월의 성격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사건의 ‘외적 관찰’의 지위를 성찰하도록 한다.

천 광년 전의 별은 연장적 연속체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한 시공의 관계 안에서 천 년이 지나 우리에게 관찰된다. 그 별은 ‘이미’ 소멸하였을는지 몰라도 그 별을 인지하는 자에 있어서 그 별은 자

---

25) Alfred North Whitehead, “Immortality,” *Harvard Divinity School Bulletin* 7 (1941-42) (Harvard University), 9.

26) PR 147-149.

신의 동시적 세계 안에서 ‘지금’ 생생하게 존재한다. 그 별은 우리의 인지를 넘어 더 나아가 만 광년 떨어진 다른 존재에게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있음을 보여 주기 위하여 지금도 우주를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달리기의 모체는 별이 아니라 별의 빛을 지금도 퍼트리려는 우주의 추이적 본성에 있다. 천 년 전의 사건이 나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의해 객체화된 사건일 뿐이다. 이러한 현시적 직접성의 양태를 가능하게 하는 우주의 연장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건의 객체화, 그리고 객체적 불멸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즉 우주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추이적이고 생성적이며 운동적이다. 우주는 연장적이다. 모든 주체는 우주의 박동을 매개로 객체적으로 기여된다. 화이트헤드는 동시적 세계의 이러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지배하고 있는 본능적 해석은 힘찬 가치로 맥박치고 있는 동시적 세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sup>27)</sup> 이러한 점에서 객체적 불멸성은 주체와 객체간의 인식론적 관계와 사건화에 관한 논법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주의 추이적 본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객체적 불멸성에 대한 해석에서 더 주목되어야 할 점은 주체가 ‘어떻게’ 타자에게 불멸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가 ‘왜’ 타자에게 객체적으로 불멸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화이트헤드가 고안하였던 객체적 불멸성이라는 개념의 우주론적 발상이자 그 배경이다. 사건은 끊임없이 우주의 운동성 안에서 객체화가 되며 그를 통하여 그 사건은 불멸한다. 그것이 바로 객체적 불멸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멸은 우주의 벡터적 흐름을 전제로 과거 사태가 미래 사태로 객체화되면서, 동시에 미래의 사태가 과거의 사태를 관찰하면서 등장한다.

---

27) AI 342.

불멸은 우주의 추이를 전제로 한 객체화와 연루된 상관개념이며, 동시에 우주와 자연의 추이(*passage of nature*)<sup>28)</sup>를 전제로 한 관측과 연루된 상관개념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는 지금 ‘이’ 사건을 ‘객체적인 관계’ 속에서 ‘불멸적 사건’으로 세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실현은 불멸적 사건으로 변화된 사건이다. 이러한 불멸성이라는 관념의 핵심에는, 나와 타자는 결국 ‘매개적 관계’임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불멸이라는 개념은 ‘매개’를 통하여 의미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멸은 그저 단순한 불멸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객체적 불멸의 구체적 의미를 얻는다.

나와 타자는 궁극적으로 독립적 개체의 완결체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관계를 통하여 출현한 '타자' 와 '나'라는 사건으로 이해된다. 나와 타자는 이러한 상호관계가 만들어내는 ‘관계성’과 ‘파악’으로 실현된다. 타자는 나로 객체화되며 그 객체화된 국면은 나에게 자명한 실재이다. 타자가 나에게 자명한 실재라는 의미는, 나에게 객체화된 타자야말로 내가 타자를 헤아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자는 나와 관계에 의거하여 구현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나에게서는 나에게 객체화된 타자 밖에 없다.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주체적 소멸과 객체적 불멸의 관계론적 성찰은 ‘소멸’의 인간학적 범주인 ‘죽음’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죽음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완성이다. 그 완성은 그 사건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원히 정초된다. 이 자리에서 이러

---

28) Cf. Chul Chun, “Zum Verhältnis vom Geist und Natur beim frühen Alfred North Whitehead,” Gregor Etzelmüller/Heike Springhart (Hrsg.), *Gottes Geist und menschlicher Geist*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3), 68.

한 방식으로 실현된 사건 자체가 죽음과 무화를 넘어선 불멸적 사건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사건은 백년 후의 타자와 환경에게 ‘생생한 현재’로 존재할 것이며, 천년 후에도 생생한 현재로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주는 우리의 모든 주체적 사건을 현재 속에서 객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우주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시간을 머금고 존재하는 시공간적 독립성과 다양성의 사건들을 모두 동시에 품고 있다.

## 5. 화이트헤드 ‘불멸’ 개념의 신학적 조명

객체적 불멸과 관계적 현실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적 구상은 우주의 추이적 본성, 주체의 소멸을 넘어선 객체적 불멸과 새로운 탄생의 가능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건은 소멸적이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불멸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담론이 인간학적 지평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한다. 모든 경험의 객체적 불멸성의 양식은 우리의 인격적 경험과 인격의 종말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특히 주체의 불멸의 가능성을 묻는 종교적 담론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가.

이러한 종교적 관점의 시선에서 객체적 불멸성의 담론은 종교적 납득과 동의를 직접적으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는 ‘형이상학’과 ‘인간학’ 사이의 깊은 해리와 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멸의 관념은 인간의 근원적 관심에 속한다. 실로 불멸의 ‘실재론’과 불멸의 ‘인간학’ 사이에는 쉽게 봉합할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르겐 몰트만은 죽음 이후의 삶을 해명할 수 있는 하나의 해석 가능성을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 개념 속에서 본다.<sup>29)</sup> 그러나 몰트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의 객체적 불멸성의 사고가 죽음을 넘어서는 삶의 궁극적 조명이 될 수 있는지 회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의 관점에서 신앙 안에서의 ‘주체적 불멸성’을 말한다.<sup>30)</sup>

현상적으로 생명체는 개체적 단위에서는 모두 소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인격, 인간에 있어서 불멸의 관념은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인간의 문화에는 바로 이러한 불멸에 대한 예술적인 표현, 종교적 지혜와 문화적 양식으로 가득 차 있다. 종교의 전승 안에서도 불멸은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된다.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말한다. 부활(Resurrection)은 기독교 사상의 근본적 특징이며 고유한 종교적 코드이다. 사실 부활 관념은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재해석의 전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인간의 영혼불멸에 대한 다양한 인간학적 견해와 성찰로 연결되기도 한다.

가톨릭 전통에서의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탄생 이전에도, 인간의 죽음 이후에도 결코 결핍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점(zero

---

29) “화이트헤드와 하트슨의 미국적 과정신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은 객체적 불멸성(objective immortality)라고 불렀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만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또한 그들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창조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단지 우리들만이 아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들을 “경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경험하신 것”은 비록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남아서 존재한다.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현존(presence)을 갖게 된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흘러간다. 우리들 자신은 빨리 잊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삶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경험이 영원히 그분의 기억 안에 남아 있는 “생명 책”과도 같다.” 위트겐 몰트만,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미하엘 벨커 · 존 폴킹혼, 『종말론에 관한 과학과 신학의 대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438-439.

30) 앞의 책, 439-440.

point)과 같은 지위를 차지한다. 그에 비해 개신교는 인간 영혼의 정체성과 불멸의 문제에 대하여는 가톨릭의 “주체적 불멸성”의 경향과는 다른 방식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정체성이 전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취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신교는 영혼불멸론의 사유로부터 점진적으로 결별하는 입장에 서 있어 보인다. 실로 인간의 정체성과 불멸에 관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다양한 전승과 견해를 헤아려 볼 때 불멸에 대한 이해와 심화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심층적인 주제로 여겨진다.

화이트헤드는 고도의 정신성의 계기들을 제공하는 유일한 유형의 조직체로서의 인격적 사회를 주목한다. 그리고 그 인격적 사회는 ‘인격’으로서 정의되는 인간이며, 이는 플라톤이 말한 영혼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리고 이 영혼은 비시간적이며, 신체적 조직체에의 완전한 의존성으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31)</sup> 그러나 그 영혼이 주체적으로 불멸한다는 관점은 극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주체적으로는 불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불멸한다는 점은 화이트헤드가 새롭게 제시한 ‘영혼불멸론’의 지평이 될 것이다.<sup>32)</sup>

화이트헤드의 ‘불멸’ 관념의 종교적 신학적 대화 가능성은 무엇인가. 화이트헤드는 종교와 문화의 다층적인 논의지평의 역사 안에서 ‘객체적 불멸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화이트헤드의 사유가 던져준 개념 가운데 매우 적극적으로 종교적-신학적 지평에서

31) AI 326-327.

32) 케서린 테너는 소멸하는 육신이 신 안에서 살게 될 때, 신의 불멸성을 취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연과학자들이 서술하는 사멸적인 육체(mortal body)라고 조명한다. Katherine Tanner, “Eschatology without a Future?,” John Polkinghorne & Michael Welker (Ed.), *The End of the World and the Ends of God: science and theology on eschatology*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236-237.

재해석되고 논란이 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객체적 불멸성’ 개념이다.<sup>33)</sup> 불멸의 문제를 과정적 사유 속에서 천착하였던 화이트헤드의 불멸 개념이 어떠한 종교적이며 신학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오늘의 신학은 주목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화이트헤드의 사유 안에서 ‘주체적 불멸성’의 가능성과 통찰을 풍요롭게 재해석해 낼 수 있다는 신학적 견해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자연철학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성찰 속에서 불멸의 개념을 접근하였기에 성서적 전승과 기독교적 전통의 지평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한지를 우리는 해석학적으로 물어야만 한다. 동시에 화이트헤드의 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형이상학(metaphysics)과 신학(theology)이라는 고유한 방법론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성찰 속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널드 셔번은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 개념과의 해석 간극을 지니는 종교적 통찰의 긴장을 주목하며, 동시에 불멸에 대한 종교적 해석간의 간극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시간적 세계 내에서의 객체적 불멸성은 보다 세련된 종교적 직관의 통찰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영속성>은 상실되었다. 그래서 <영속성>은 보다 세련된 종교의 기초가 되는 저 비전의 내용—최종적인 통일성 속으로 영속적으로 흡수되는 다자(多者)—이 된다. 신의 유동성과 변천하는 경험의 영속성의 문제는 우주의 동일한 요인에 의해서 해결된다.”<sup>35)</sup>

33)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 ‘하나님’, 그리고 ‘하늘’(Himmel)의 관계 및 재구성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Michael Welker, *Universalität Gottes und Relativität der Welt. Theologische Kosmologie im Dialog mit dem amerikanischen Prozessdenken nach Whitehead*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1988), 212-213.

34) Roland Faber, *Gott als Poet der Welt: Anliegen und Perspektiven der Prozesstheologi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3), 238.

35) 도널드 W. 셔번/오영환 박상태 역,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 입문』 (서

자연철학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지평 속에서 매우 치열하게 “불멸”의 문제를 성찰했던 화이트헤드의 작업들은 향후 신학적 종말론과 불멸의 문제의 구성에 있어서도 매우 참신한 통찰을 던져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불멸 개념이 21세기 종교와 신학의 담론에 어떠한 통찰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과 신학의 간학문간 대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 개념이 어떠한 신학적 성찰을 던져주는지를 해아려보도록 하자. 첫째, 객체적 불멸성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실재론적 접근(realistic approach)은 인격적 조명을 통하여 구상된 인간의 불멸에 대한 종교/신학적 통념의 실재론적 근거를 묻는다. 사실 종교와 신학의 전승과 통찰에서 전제된 기본적인 문법인 ‘영혼의 불멸’(immortality of soul) 관념의 인간학적 정당성을 화이트헤드는 부정하지 않는 듯하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체계에서의 ‘주체적 불멸’(subjective immortality)의 가능성<sup>36)</sup>을 논의할 수도 있다.<sup>37)</sup> 문제는 불멸의 ‘실재론적’ 조

---

출: 서광사, 2010), 287.

36) David Griffin, “The Possibility of Subjective Immortality in Whitehead’s Philosophy,” *Modern Schoolman* 53 (1975), 39-57 ; Lewis S. Ford · Marjorie Suchocki, “A Whiteheadian Reflection on Subjective Immortality,” *Process Studies* 7 (1977), 1-13.

37) 우리는 여기에서 ‘객체적 불멸성’의 가설이 ‘주체적 불멸성’의 가설과 양립불가능한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객체적 불멸성’ 담론은 유동하는 세계 안에서, 유동을 넘어서는 ‘불멸’에 대한 고민이다. 유동과 생명의 세계에서 불멸을 논한다면 그 불멸을 ‘주체적 불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그 위상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물 밖에 대한 직접지가 없기 때문에, 물 안의 패턴을 바탕으로 물 밖의 영역에 대하여 ‘투사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 즉 유동의 세계에서 영속의 세계에 대해 기껏 제시할 수 있는 가설은, 살아있는 유동의 세계의 존재방식이 ‘객체적’이므로 영생 또한 객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이며, 이 주장은 ‘대칭성과 상응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적절한 근

명과 ‘인격적’ 조명의 궁극적 관계에 대한 해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개신교신학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교 문화와 삶의 자리  
에 내재하는 ‘영혼 불멸’ 관념이 성서적 전승 안에서 얼마나 정  
당성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주체적 불멸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서의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플라토니즘과 스콜라사유 일각이  
보여주고 있는 영존하는 실체적 영혼관념에 대한 비판이 스며있  
다. 그리스도교의 불멸 관념 또한 플라토니즘과 스콜라사유와의  
상호 혼종적인 영향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었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신교신학의 중요한 전승이자 전통인 인간 존재의 정체  
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과 같은 매우 고양된  
종교적 통찰을 심오한 차원으로 재해석하고 승화해야 할 과제를  
우리는 ‘객체적 불멸성’ 개념을 통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종교와 과학의 간  
학문간 대화 속에서 더욱 심화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인간론,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실재론적 접근과 인격  
적 접근, 과학적 접근과 신학적 접근에 대한 방법론적이며 내재  
적 성찰에 대한 탐색과 함께 동시에 각 학제간의 성과를 풍요롭  
게 대화 안에서 공유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sup>38)</sup> 이러한 학제

---

거를 갖는다. 이는 유한의 세계의 논법을 바탕으로 무한의 세계에 대하여  
진술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한의 세계에서 추론한 ‘객  
체적 불멸’에 대한 가설이, 무한의 세계에서의 ‘주체적 불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38) 이러한 학제간 대화의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다음의 연구저작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Michael Welker, “What is the ‘spiritual body’?  
On what may be regarded as ‘ultimate’ in the interrelation between Gott,  
matter, and information,” Paul Davies & Niels Henrik Gregersen (Ed.),  
*Information and the Nature of Reality : From Physics to Metaphysics*

간 대화의 과제에 화이트헤드의 메타언어(meta-language)는 매우 중요한 모델과 통찰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 6. 나가며

사멸성에 대한 인간의 깊은 통찰은 종교와 신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인간은 소멸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는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며,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다. 우리 대부분의 일상적이고 인격적 경험은 나와 타인의 죽음 너머의 주체적 불멸성, 혹은 죽음 너머의 연속성을 갈망한다. 종교의 고백적/인격적 진술이 주체적 불멸성의 관념과 연결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화이트헤드는 존재와 영혼의 통일성은 말하지만 존재와 영혼의 불멸성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 경험의 아포리아에 관하여 그는 “객체적 불멸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사색은 소멸과 불멸에 관한 문명론적 전망과 그 지평을 실재론적으로 확대하였다. 화이트헤드의 객체적 불멸성 개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349-364. Michael Welker,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 John Polkinghorne & Michael Welker (Ed.), *The End of the World and the Ends of God: science and theology on eschatology*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279-290. Michael Welker, “Flesh-Body-Heart-Soul-Spirit: Exploring the Depth of the Human Person,” *The Theology and Science Dialogue: What Can Theology Contribute?* (Neukirchener 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 37-52 ; Michael Welker, “Flesh-Body-Heart-Soul-Spirit: Paul’s Anthropology as an Interdisciplinary Bridge-Theory,” Michael Welker (ed.), *The Depth of the Human Pers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45-57.

념은 21세기 현대신학의 담론 형성, 그리고 신학과 과학의 대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분명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사건들이 다른 것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유일하고 영원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객체적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점을 주목하였다.<sup>39)</sup> 어떠한 점에서 화이트헤드가 우리에게 제시한 객체적 불멸성 관념은 우리의 경험세계에 대한 합리적 사변의 깊은 통찰이자 정점이다.

그에 반하여 도덕적이며 종교 문화적 전승에서는 영혼의 불멸을 말한다. 실로 인간에게는 이러한 사변적 통찰을 넘어서는 주체적 불멸성에 대한 작렬하는 갈망이 존재한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와 존재의 불멸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가 될 뿐이다. 사실 어쩌면 종교적 표상으로 제출되는 ‘주체적 불멸’은 합리적 사변으로 도출되지 않는 신앙의 사변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사변, 혹은 믿음의 진술은 인간의 사변이 남긴 매우 고양된 성과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또 다른 인간학적 여정인지도 모른다.

죽음과 불멸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사색의 궁극적 대답은 객체적 불멸이라는 통찰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 허나 우리에게는 동시에 죽음과 불멸에 대한 종교적이며 인간학적 성찰의 산물인 주체적 불멸의 전승 또한 제시되어 있다. 적어도 객체적 불멸성이라는 화이트헤드의 사변과 사색은 우리에게, ‘객체적 불멸성’을 구상으로 한 심오한 신학적이며 종교적 고백과 담론적 재구성이

---

39) 피조세계의 모든 다차원적인 상대적, 관계적, 현실적 경험을 구유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Chul Chun, *Kreativität und Relativität der Welt beim frühen Whitehead: Alfred North Whiteheads frühe Naturphilosophie(1915-1922) - eine Rekonstruktion*(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212-214.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게 한다. 동시에 형이상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실재론적으로 종합롭게 검토하고 간 학문간의 연구와 대화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남겨준다.

## 참고문헌

- Alfred North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New American, 1933) [오영환 역. 『관념의 모험』 (서울: 한길사, 1996)]
- Alfred North Whitehead. *Modes of Thought*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오영환 문창옥 역. 『사고의 양태』 (서울: 다산글방, 2003)]
-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The Gifford Lectures of the University of Edinburgh. Corrected edition von David Ray Griffin und Donald W. Sherburne (1929)*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오영환 역. 『과정과 실재: 유기체적 세계관의 구상』 (서울: 민음사, 1991)]
- Alfred North Whitehead. "Immortality." *Harvard Divinity School Bulletin* 7 (1941-42) (Harvard University), 5-21.
- 도널드 W. 셔번/오영환 박상태 역.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 입문』 (서울: 서광사, 2010)
- 플라톤/박종현 역. 『파이돈』 (서울: 서광사, 2003)
- C. Robert Mesle. *Process-Relation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Alfred North Whitehead* (West Conshohocken: Templeton Foundation Press, 2009)
- Chul Chun. *Kreativität und Relativität der Welt beim frühen Whitehead: Alfred North Whiteheads frühe Naturphilosophie (1915-1922) - eine Rekonstruktio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 Chul Chun. "Zum Verhältnis vom Geist und Natur beim frühen Alfred North Whitehead." Gregor Etzelmüller/Heike Springhart (Hrsg.). *Gottes Geist und menschlicher Geist*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3), 61-68.
- David Griffin. "The Possibility of Subjective Immortality in Whitehead's Philosophy."

- Modern Schoolman* 53 (1975), 39-57.
- Harald Holz & Ernest Wolf-Gazo (Hg.). *Whitehead und der Prozeßbegriff: Beiträge zur Philosophie Alfred North Whiteheads auf dem Ersten Internationalen Whitehead-Symposium 1981* (Freiburg: Alber, 1984)
- John Polkinghorne & Michael Welker (Ed.). *The End of the World and the Ends of God: science and theology on eschatology*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 Jorge Luis Nobo. *Whitehead's Metaphysics of Extension and Solidarit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
- Lewis S. Ford · Marjorie Suchocki. "A Whiteheadian Reflection on Subjective Immortality." *Process Studies* 7 (1977), 1-13.
- Michael Hampe. *Alfred North Whitehead* (München: Beck, 1998)
- Michael Welker. *The Theology and Science Dialogue: What Can Theology Contribute?* (Neukirchener 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
- Michael Welker. *Universalität Gottes und Relativität der Welt. Theologische Kosmologie im Dialog mit dem amerikanischen Prozessdenken nach Whitehead*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1988)
- Michael Welker (ed.). *The Depth of the Human Pers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 Paul Davies & Niels Henrik Gregersen (Ed.). *Information and the Nature of Reality : From Physics to Metaphys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Roland Faber. *Gott als Poet der Welt: Anliegen und Perspektiven der Prozesstheologi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3)
- Rowanne Sayer. *Wert und Wirklichkeit: Zum Verständnis des metaphysischen Wertbegriffes im Spätdenken Alfred North Whiteheads und dessen Bedeutung für den Menschen in seiner kulturellen Kreativität* (Würzburg: Ergon, 1999)
- Stephen David Ross. *Perspective In Whitehead's Metaphysic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3)
- Timothy E. Eastman & Hank Keeton. *Physics and Whitehead: Quantum, Process, and Experien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4)

【Abstract】

## A Study on the Concept of *Immortality* of Alfred North Whitehead

Chul Chun (Hanshin Univ)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objective immortality of Alfred N. Whitehead. Whitehead distinctly suggests the subjective mortality and objective immortality by relating them with the conceptualization of *objective immortality*. By him, the subject is created and perished every moment but all of the occasions are not vanishing, becoming objective. God embraces the perishing of every subjective mortality as objective, functioning as a basis of *objective immortalit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assage of nature of cosmos as a premise of the idea of the *objective immortality*. Furthermore, it investigates how the observation functions as a significant basis of objectification and how the objective immortality as a metaphysical notion is justified and signified from an anthropological viewpoint. Through it, this research tries to specifically reinterpret the religious-anthropological meaning of Whitehead's concept of *objective immortality*.

Key Words : mortality, immortality, objective immortality, soul, death, theology and science

접 수 일 : 2014년 11월 4일

심사기간 : 2014년 11월 11일 ~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1월 17일